

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7. Vol. 18. No. 1. pp. 53~7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김형모** · 이숙진*** · 서해정*** · 최은정*** · 김은정*** · 문순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아동학대 노출이 부부폭력 노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이중노출보다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의사소통능력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훈육능력이 외현화 문제 중 비행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능력이 외현화 문제 중 공격성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 본 연구는 2005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연구그룹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I. 서 론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이제 법 시행 10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은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김재엽이 조사한 부부폭력 발생율은 31.4%, 2000년 연성진의 연구에서는 38.2%로 나타났으며, 2004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배우자 폭력 발생율은 44.6%로 조사되었다. 또한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라도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53.6%로 나타났다(김재엽, 1998; 여성가족부, 2004). 가정은 가족 개개인의 안전, 건강한 성장, 행복의 진원지이며, 가족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가정은 구성원간의 사랑과 이해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때때로 가족 상호간의 이해부족, 가족 스트레스, 고립화 등으로 가족갈등이 야기되고, 가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박미주, 2002). 가정폭력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가장 위협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친밀과 애정의 근원지인 가정이 폭력의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질 위험성이 높다는 일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남현, 2005; 김재엽 외, 2005; 김현수, 1998; 노치영, 1998; 민병근·김현수, 1997; 민수홍, 1998; 정양숙, 2003; 조미숙, 1999; 최옥순, 2003; Curtis, 1963; Hershorn & Rosenbaum, 1985; Hughes & Barad, 1983; Jaffe et al., 1986; Kalmuss, 1984).

그러나 개별 연구마다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과 가정폭력에만 노출된 청소년이 보이는 적응상의 문제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는 반면에(Jaffe et al., 1986),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목격과 아동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은 가정폭력을 목격한 청소년에 비해 그 정도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아동학대가 심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고(김연옥·박인아, 2000; Hughes et al., 1989; O'Keefe, 1994a), 반대로 가정폭력 경험보다 가정폭력 목격이 더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노치영, 1998; Kalmuss, 1984). 또한 단순한 가정폭력 목격은 가정폭력 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가정폭력 경험은 가정폭력 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최옥순, 2003). Kolbo와 동료들(1996)은 가정폭력 목격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질 위험은 높았으나 사회적, 인지적, 신체발달 영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가정폭력 목격 청소년의 일부만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띠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도 있다(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2001). Rosenberg의 연구와 Christopoulos의 연구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당수가 폭력 허용적인 공격행동이나 왜곡된 피해자 인식 등의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고, Graham-Bermann의 연구도 역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 중에서 약 60%는 임상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가정폭력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양주연, 2004).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들이 모두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 노출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양육행동, 부모양육태도,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초기 아동기의 적응 관계는 물론 청소년기 이후와 청년기, 성인기까지 지속,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 자기신뢰, 자신감, 자기통제, 성취정도, 공격성 등과 같은 특성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서보열, 2003).

특히 최근 들어 부모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양육효능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육효능감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 가정폭력 노출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발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가정폭력을 청소년이 인지하게 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동일 시점에 가정 내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고함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 사람이 어딘가에 부딪치는 소리, 울음소리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후에 폭력으로 인한 상처등 상해의 흔적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 다른 한쪽 부모나 다른 가족을 통해 인지하게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을 목격, 관찰, 경험 등을 통해 인지하거나 아동학대를 직접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기 때문에 목격, 관찰은 물론 직접적인 경험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가정폭력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노출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적응문제를 정서문제, 행동문제, 사회성 문제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20여 년간 실시된 조사들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는데(Edleson, 1999; Margolin, 1998), 그 결과 가정폭력 노출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영역에 있어서도 또래나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나 부적절한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내에서 행동평가척도(K-CBCL)상의 내재화 문제 중 우울·불안, 위축 척도 등을 이용한 연구결과, 가정폭력 노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원·전명희, 2001; 조미숙, 2003). 특히 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혜섭(2000)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에 비해 내재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행동평가척도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심한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Fantuzzo et al., 1991; Hughes et al., 1989; O'Keefe, 1994b; Wolfe et al., 1985). 그 대표적 증상으로는 우울·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가정폭력 노출청소년들의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것에 편중되어왔다. 이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공격성을 학습하며, 공격행동 및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1995; 김재엽, 1998; 노치영·박성연 1992; 민병근·김현수, 1997; 조미숙, 1999).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주로 행동평가척도의 외현화 척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행동적 문제를 나타냈다(Fantuzzo et al., 1991; Hughes et al., 1989; O'Keefe, 1994b; Wolfe et al., 1985). 또한 쉼터 청소년의 주된 문제해결 방법은 폭력이며, 이들은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이나 동물들, 그리고 장난감 등에도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가정의 청소년은 공격적인 행동이 더욱 증가하여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Jaffe et al., 1990).

가정폭력 노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청소년의 목격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행동, 정서, 사회적응, 인지발달, 신체적 문제를 가질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 가정폭력 경험보다 가정폭력 목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고(노치영, 1988; Kalmuss, 1984), 가정폭력 경험과 달리 단순한 목격은 가정폭력 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최옥순, 2003). 가정폭력 목격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질 위험은 높았으나 사회적, 인지적, 신체발달 영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폭력성의 경우 일부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띠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도 있다(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2001; Kolbo et al., 1996).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이중노출에 관한 연구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이중노출된 청소년과 가정폭력에만 노출된 청소년이 보이는 적응상의 문제는 유사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는 반면에(Jaffe et al., 1986),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이중노출된 청소년은 가정폭력에만 노출된 청소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아동학대가 심할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연옥·박인아, 2000; O'Keefe, 1994a).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공존하는 비율이 연구에 따라 28%-70%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Osofsky(1998)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학대당할 가능성은 일반가정에 비해 15배가량이나 높다는 보고하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가정에서도 이중노출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격유형, 경험유형과 더불어 이중노출 유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목격, 경험, 이중노출 등 가정폭력 노출 유형별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제주시, 수원시, 부천시, 군포시 소재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이었다. 각 지역별로 중학교 1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200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소재 1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540명으로 남학생이 281명, 여학생이 259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가정폭력 노출

가정폭력 노출청소년의 부부폭력 목격정도와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와 동료들(1996)이 개발한 CTS2(Conflict Tactics Scale2)를 장덕희(2001)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7문항, 신체적 폭력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5점 척도로 지난 1년 동안 전혀 없다 1점, 1년에 한두 번 2점, 한 달에 한두 번 3점, 일주일에 1회 이상 4점, 거의 매일 5점으로 분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부부폭력 노출척도의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노출척도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를 조미숙(1999)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구성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에서 행동·심리·사회 적응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측정한 척도 중 행동과 심리적응 차원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내재적 문제 14문항, 외현화 문제는 비행행동 13문항, 공격행동 19개 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문제척도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2002)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검증 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전반적인 양육능력 11문항,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7문항, 의사소통능력 9문항, 학습지도능력 6문항, 훈육능력 4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반반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남학생이 281명(52.0%), 여학생이 259명(47.8%)이었고, 성적은 중위권이 7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종교는 36.3%가 기독교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182명(33.7%)이었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 형태가 9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의 학력으로는 4년대 졸업이 39.3%, 전문대졸이 11.0%로 약 절반정도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고졸은 32.4%였고 모의 학력으로는 고졸이 51.5%로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형태로는 자가가 59.2%였고,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70.7%로 조사되었고 가족 총수입은 200-300만원 미만 사이가 25.3%로 가장 많았다. 부의 직업은 사무직이 298명(56.9%)로 가장 많았으며, 모의 직업은 241명(45.6%)로 약 절반정도가 주부로 조사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
성별	남자	281	52
	여자	259	48
성적	상위권	77	14.3
	중상위권	131	24.3
	중위권	143	26.6
	중하위권	125	23.2
	하위권	62	11.5
종교	기독교	196	36.3
	천주교	45	8.3
	불교	105	19.4
	기타	11	2.0
	없음	182	33.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항 목	구 分	빈 도	%
결혼상태	결혼	485	90.0
	별거	9	1.7
	이혼	29	5.4
	사별	7	1.3
	기타	9	1.7
부 학력	무학	0	0.0
	초등학교	2	.4
	중학교	22	4.2
	고등학교	168	32.4
	전문대학	57	11.0
	4년제 대학	204	39.3
	대학원 이상	66	12.7
모 학력	무학	1	.2
	초등학교	5	1.0
	중학교	25	4.8
	고등학교	266	51.5
	전문대학	37	7.2
	4년제 대학	142	27.5
	대학원 이상	41	7.9
주거 소유 형태	자가	308	59.2
	전세	150	28.8
	월세	46	8.8
	기타	16	3.1
주거 유형	단독	56	10.4
	다세대 주택	82	15.3
	아파트	379	70.7
	기타	18	3.4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22	4.6
	100~150만원미만	34	7.0
	150~200만원미만	67	13.9
	200~300만원미만	122	25.3
	300~400만원미만	86	17.8
	400~500만원미만	59	12.2
	500만원이상	93	19.3

항 목	구 分	빈 도	%
부 직업	직업 없다	14	2.7
	생산직	44	8.4
	농어민	12	2.3
	서비스, 판매직	94	17.9
	사무직, 반전문기술직	298	56.9
	관리직, 전문직	62	11.8
모 직업	주부	241	45.6
	생산직	15	2.8
	농어민	6	1.1
	서비스, 판매직	123	23.3
	사무직, 반전문기술직	117	22.1
	관리직, 전문직	27	5.1

2.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율

부부폭력 발생율과 관련하여, 언어·심리적 폭력 발생율은 19%~56.6%,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1.1%~24%로 나타났다. 언어·심리적 폭력 유형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가 56.6%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나타냈으며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가 19%로 발생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유형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24%,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3.1%로 나타났고 나머지 신체적 폭력 유형별 발생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유형인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1.1%, 그 다음으로 심각한 폭력유형인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는 발생율이 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율과 관련하여, 언어·심리적 폭력 발생율이 유형별로 15.7%~64%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유형별로 1.1%~42%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언어·심리적 폭력 유형 중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가

64%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나타냈으며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가 15.7%로 발생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유형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벗자루나 봉동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가 42%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17.9%,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3.1%, 뺨을 때린 적이 있다가 15.1%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 유형인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1.1%, 그 다음으로 심각한 폭력유형인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는 발생율이 10.5%로 나타났다.

<표 2>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율

구분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유형	발생빈도										
		구분	전혀 없었음		1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1회이상		거의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 여 · 심 리 적 폭 력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부부 폭력	338	62.4	133	24.5	48	8.9	16	3.0	7	1.3
		아동 학대	294	54.2	124	22.9	77	14.2	35	6.5	12	2.2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부부 폭력	235	43.4	192	35.4	70	12.9	39	7.2	6	1.1
		아동 학대	195	36.0	161	29.7	109	20.1	63	11.6	14	2.6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부부 폭력	313	57.7	156	28.8	58	10.7	13	2.4	2	.4
		아동 학대	404	74.5	83	15.4	44	8.1	9	1.7	2	.4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부부 폭력	435	80.3	78	14.4	20	3.7	7	1.3	2	.4
		아동 학대	450	83.0	57	10.5	23	4.2	7	1.3	5	.9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	부부 폭력	395	72.9	114	21.1	20	3.7	13	2.4	0	0
		아동 학대	433	79.9	71	13.1	29	5.4	7	1.3	5	.9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부부 폭력	439	81	84	15.5	14	2.6	5	.9	0	0
		아동 학대	457	84.3	67	12.4	14	2.6	3	.6	1	.2

구분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유형	발생빈도										
		구분	전혀 없었음		1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1회이상		거의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신체적 폭력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부부 폭력	412	76	104	19.2	17	3.1	8	1.5	1	.2
		아동 학대	445	82.1	68	12.6	18	3.3	9	1.7	2	.4
	몸을 세계 밀친 적이 있다.	부부 폭력	471	86.9	57	1.6	10	1.8	4	.7	0	0
		아동 학대	472	87.1	43	7.9	19	3.5	3	.6	1	.2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부부 폭력	511	94.3	25	4.6	4	.7	1	.2	0	0
		아동 학대	460	84.9	67	12.4	11	2.0	1	.2	1	.2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심한 신체폭력	부부 폭력	498	91.9	38	7	5	.9	1	.2	0	0
		아동 학대	465	85.8	57	10.5	15	2.8	4	.7	1	.2
	빗자루나 봉동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부부 폭력	495	91.3	33	6.1	12	2.2	2	.4	0	0
		아동 학대	314	58.0	165	30.4	54	10.0	8	1.5	1	.2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부부 폭력	526	97.0	14	2.6	1	.2	1	.2	0	0
		아동 학대	485	89.5	46	8.5	9	1.7	2	.4	0	0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부부 폭력	536	98.9	6	1.1	0	0	0	0	0	0
		아동 학대	536	98.9	3	.6	3	.6	0	0	0	0

3.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주요 변수들의 점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이 부부폭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언어·심리적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은 평균 1.45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인 폭력은 평균 1.07로 조사되었다. 부부폭력 노출유형 중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에 의한 아동학대 경험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언어·심리적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은 평균 1.48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인 폭력은 평균 1.20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심한 것은 ‘내게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가 평균 2.20으로 가장 높았고, ‘내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를 빗자루나 봉동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5개의 하위 영역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평균 4.04로 가장 높았고 훈육능력 4.00, 건강한 양육능력 3.89, 의사소통능력 3.80, 학습지도능력 3.61로 나타났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이 평균 1.96으로 가장 높았고, 내재화 문제는 1.89, 비행문제가 1.39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부폭력	전체	1.26	.33
	언어·심리적 폭력	1.45	.54
	신체적 폭력	1.07	.20
아동학대	전체	1.34	.42
	언어·심리적 폭력	1.48	.59
	신체적 폭력	1.20	.33
청소년의 문제	전체	1.75	.39
	내재화	1.89	.60
	외현화	1.39	.32
	공격성	1.96	.46
	전체	3.87	.71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전반적인 양육능력	4.04	.74
	건강한 양육능력	3.89	.83
	의사소통능력	3.80	.84
	학습지도능력	3.61	.86
	훈육능력	4.00	.78

4.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폭력 노출청소년, 아동학대 노출청소년,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에 이중노출된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폭력 노출유형별로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폭력 노출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부부폭력($\beta=.138$, $p<.05$), 아동학대 노출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beta=.211$, $p<.001$), 이중노출 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beta=.172$,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심리적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노출유형별로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폭력 노출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부부폭력($\beta=.178$, $p<.001$), 아동학대 노출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beta=.181$, $p<.001$), 신체적 아동학대($\beta=.176$, $p<.01$), 이중노출 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부부폭력($\beta=.158$, $p<.05$), 언어·심리적 아동학대($\beta=.228$, $p<.001$), 신체적 아동학대($\beta=.144$,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노출 유형의 언어·심리적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노출유형 중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출유형 중 언어·심리적 부부폭력, 이중노출 유형 중 언어·심리적 부부폭력, 신체적 아동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노출유형별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폭력 노출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부부폭력($\beta=.223$, $p<.001$), 아동학대 노출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beta=.248$, $p<.001$), 이중노출 유형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beta=.233$,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노출 유형의 언어·심리적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폭력 노출유형 중 언어·심리적 부부폭력, 이중노출 유형 중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표 4>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내재화 문제						
		B	S.E	β	t	R ²	AdjR ²	
부부 폭력	언어·심리적	.154	.056	.138	2.751*	.020	.017	5.56**
	신체적	2.242	.149	.008	.151			
아동 학대	언어·심리적	.215	.054	.211	4.001***	.058	.055	16.632***
	신체적	8.006	.094	.045	.852			
이중 노출	언어·심리적 부부폭력	7.185	.065	.069	1.104	.005	-.001	.907**
	신체적 부부폭력	2.027	.159	.008	.127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168	.065	.172	2.586*	.037	.032	6.532**
	신체적 아동학대	4.933	.102	.032	.483			
독립변수		비행(외현화 문제)						
		B	S.E	β	t	R ²	AdjR ²	
부부 폭력	언어·심리적	.107	.030	.178	3.606***	.057	.054	16.318***
	신체적	.146	.07	.092	1.859			
아동 학대	언어·심리적	9.967	.028	.181	3.518***	.103	.100	30.781***
	신체적	.169	.049	.176	3.412**			
이중 노출	언어·심리적 부부폭력	9.246	0.36	.158	2.586*	.044	.038	7.677**
	신체적 부부폭력	.113	.087	.079	1.290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125	.035	.228	3.556***	.111	.106	21.121***
	신체적 아동학대	.123	.055	.144	2.243*			
독립변수		공격성(외현화 문제)						
		B	S.E	β	t	R ²	AdjR ²	
부부 폭력	언어·심리적	.191	.042	.223	4.525***	.057	.053	16.166***
	신체적	6.00	.112	.026	.536			
아동 학대	언어·심리적	.194	.040	.248	4.798***	.100	.097	29.911***
	신체적	.133	.071	.097	1.881			
이중 노출	언어·심리적 부부폭력	8.577	.050	.106	1.716	.019	.013	3.200*
	신체적 부부폭력	9.459	.122	.048	.774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176	.049	.233	3.564***	.071	.066	12.970***
	신체적 아동학대	6.147	.078	.052	.792			

* p<.05, ** p<.01, *** p<.001

5.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투입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결정계수 값이 1단계에 비해 2단계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내재화 문제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6.8% 증가하였고, 비행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10.3%,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7%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해도 높아지는 결정계수의 결점을 보완한 수 정된 결정계수 값 또한 모든 모형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효능감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유의한 설명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재화, 비행,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한 각각의 모형에서 모두 F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 유의성이 검정되었다($p < .001$).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재화 문제를 종속변수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7$, $p < .001$) 2단계에서 양육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beta = -.202$, $p < .01$),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설명변수인 언어·심리적 아동학대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7 \rightarrow \beta = .137$).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언어·심리적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행을 종속변수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beta = .157$, $p < .01$)와 신체적 아동학대($\beta = .143$, $p < .01$)가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심리적, 신체적 아동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훈육능력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beta = -.202$, $p < .01$), 훈육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병변수인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및 신체적 아동학대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beta = .157 \rightarrow \beta = .109$, 신체적 아동학대 $\beta = .143 \rightarrow \beta = .103$).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언어·심리적, 신체적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1단계에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2단계에서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언어·심리적 아동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210$, $p < .001$), 2 단계에서 양육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76$, $p < .05$), 설병변수인 언어·심리적 아동학대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0 \rightarrow \beta = .148$).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언어·심리적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Step ¹		Step ²		Step ¹		Step ²		Step ¹		Step ²	
		B	β										
부부	언어·심리적	.046	.042	.017	.016	.044	.074	.011	.019	.0953	.112*	.0655	.081
	신체적	.007	.003	.008	.003	.104	.065	.105	.066	.0377	.017	.0408	.018
아동학대	언어·심리적	.201	.197***	.139	.137**	.086	.157**	.060	.109*	.164	.210***	.116	.148**
	신체적	.067	.038	-.004	-.003	.137	.143**	.098	.103*	.102	.075	.0471	.035

독립변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Step ¹		Step ²		Step ¹		Step ²		Step ¹		Step 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양육 태도	전반적인 양육 능력			.079	.098			-.067	-.153			.0381	.061
	건강한 양육 능력			-.032	-.044			.027	.071			.0162	.029
	의사 소통 능력			-.144	-.202**			.023	.061			-.096	-.176*
	학습지도 능력			-.087	-.126			-.021	-.056			-.065	-.122
	훈육 능력			-.023	-.030			-.109	-.261***			-.057	-.096
R^2		.060		.128		.115		.218		.112		.182	
AdjR ²		.053		.113		.108		.204		.105		.168	
F value		.512***		8.654***		17.341***		16.369***		16.858***		13.065***	
R^2 변화량		.068		.103						.070			

* p<.05, ** p<.01, *** p<.001

V. 결 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폭력 노출, 이동학대 노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이중노출 등 가정폭력 노출 유형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동학대 노출이 부부폭력 노출이나 이중노출보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유형에서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대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과 가정폭력에만 노출된 청소년이 보이는 적응상의 문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Jaffe et al., 1986)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노출이 부부폭력 노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이중노출보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부폭력 노출의 경우 언어·심리적 폭력 일부 항목 외에는 부부 폭력 노출 사례수가 부족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연구결과 부부폭력 노출보다 아동학대 노출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심할수록 청소년들이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김연옥·박인아, 2000; Hughes et al., 1989; O'Keefe, 1994a)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육능력은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중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의사소통능력은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중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부만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왜곡된 피해자 인식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일부만이 임상집단에 속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양주연, 2004)와 맥을 같이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라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태도 등 매개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적응양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응답의 정확도 특히 부부폭력 발생율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를 동시에 측정한다면 각기 다른 측정방법으로 인한 발생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도 부모가 보고한 것과 교사가 보고한 것, 그리고 청소년이 보고한 것을 함께 동시에 측정할 경우 역시 각기 다른 측정방법으로 인한 발생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효능감 측정에 있어서도 부모가 보

고한 것과 청소년이 지각한 것을 같이 측정하는 연구설계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의 경우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인지,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여 가해자가 어머니인지 혹은 아버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각각의 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한다면,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문제에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가해자의 양육효능감 효과측정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가정폭력이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현(2005). 가정폭력과 대중매체폭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옥 · 박인아(2000). 가정폭력이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5권, pp. 103-127.
- 김재엽(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pp. 133-155.
- 김재엽 · 양혜원 · 김희수(2005). 아내폭력노출이 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분석: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0호, pp. 67-95.
- 김현수(1998).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판별요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144권, pp. 483-492.
- 노치영(1988). 가정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노치영 · 박성연(1992). 가족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제4호, pp. 219-230.
- 민병근 · 김현수(1997). 부부관계, 부부역동성 및 가정폭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제140권, pp. 878-895.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미주(2002).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보열(2003).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6호, pp. 67-84.
- 양주연(2004). 아내폭력 노출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Mentor와의 관계 및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혜원 · 전명희(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제6권, pp. 127-152.

여성가족부(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2001), 가족학대 · 가족폭력, 나남출판.

장덕희(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양숙(2003). 부부폭력과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미숙(1999).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변인 탐색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미숙(2003). 부부폭력목격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대한 중재변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제2호, pp. 85-101.

최옥순(2003). 성인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가정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chenbach, T. M., and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Association in Psychiatry.

Curtis, G. C.(1963). Violence breeds violence-perha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20, pp. 386-387.

Edleson, J. L.(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4, pp. 839-870.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Martino, T., Anderson, G., and Sutton, S.(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9 No. 2, pp. 258-265.

Hershorn, M., and Rosenbaum, A.(1985). Child of marital violence: A closer look

- at the unintended victims, *American of Orthopsychiatry*, Vol. 55 No. 2, pp. 260-266.
- Hughes, H. M., and Barad, S. J.(1983).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children in a battered women's shelter: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3, pp. 525-531.
- Hughes, H. M., Parkinsson, D., and Vargo, M.(1989). Witnessing spouse abuse and experiencing physical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4, pp. 197-209.
- Jaffe, P. G., Wilson, S. K., and Wolfe, D. A.(1986). Promoting changes in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conflict among child witnesses of family viol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18, pp. 356-380.
- Jaffe, P. G., Wolfe, D. A., and Wilson, S. K.(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Sage.
- Kalmuss, D.(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14, pp. 11-19.
- Kolbo, J. R., Blakely, E. H., and Engleman, D.(1996). Children who witness domestic violence: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1, pp. 281-293.
- Margolin, G.(1998). Effects of witnessing violence on children. In P. K. Trickett, and C. J. Schellenbach(Eds.),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Keefe, M.(1994a). Linking marital violence, mother-child/father-child aggress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9, pp. 63-78.
- O'Keefe, M.(1994b). Racial/ethnic differences among battered women & their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9, pp. 63-78.
- Osofsky, J. D.(1998). Children as invisible victims of domestic & community violence. In G. W. Holden, R. Geffner, and E. N. Jouriles(Eds.),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pp. 95-11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raus, M., Hamby, S. H., Boney, M. S., and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7 No. 3, pp.

283-316.

Wolfe, D. A., Jaffe, P., Wilson, S. K., and Zak, L.(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53, pp. 657-665.

ABSTRACT

The Effects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Youth

Kim, Hyung-Mo* · Lee, Suk-Jin* · Seo, Hae-Jung* · Choi, Eun-Jung* ·
Kim, Eun-Jung* · Moon, Sun-Hee*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youth.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ole of rearing efficacy of mother which was recognized by the youth between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nd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youth.

The research subject of this study was seventh-grade male and female students at Seoul, Jeju, Suwon, Buchon, Gunpo cities. One school from each city was selected by researchers, and seventh-grade students at each school were surveyed by researchers. The pre-test was conducted on students from one school at Seoul city,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40 student, 281 male students and 259 female students on November of 2006.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s. First, exposure to child abuse tha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had more negative effects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the youth. Second, communication ability and discipline ability of mother reduced the negative effects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the youth.

Key Words : exposure to family violence,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of youth, rearing efficacy of mother

투고일 : 3월 29일, 심사일 : 4월 30일, 심사완료일 : 5월 18일

* Kyonggi University